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박은영 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는 중세의 암흑시대를 만든 비진리와 억압의 종교체제에서 진리의 빛을 회복한 것을 기념한다.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은 큰 획을 그은 사건이지만 교회가 그 당시 폐쇄적이고 탐욕적인 종교 권력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

르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분리된 것이 정당했다는 의미로만 한정한다면 그것은 과거 역사책의 한 페이지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피 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하고 있으므로 끊임없는 세속화, 거짓 가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하며
끊임없는 세속화, 거짓, 위선,
자기기만의 유혹에 직면한다.

이럴 때 교회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정화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마다하고
거룩함을 떠나면 타락한 체제가 될 수 있다.

르침, 위선, 자기 기만의 유혹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교회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정화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마다하고 거룩함을 떠나 변질되면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 위한 종교적 권위를 위장한 타락한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진리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나 자신은 중세의 그 타락한 종교권력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종교의 형식은가지고 있으며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재료로 이용하는 ‘강도의 굴혈’이 된 성전(마21:13)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탐욕과 우상에 젖은 종교체제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교회로 변혁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종교개혁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랜 우상숭배에 젖은 성전과 종교체제

를 불사르며 개혁을 하였던 요시아나 불 같은 노여움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며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세상이 주는 욕망, 성공, 인기에 취해 있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결한 헌신을 도외시한다면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할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교회와 그 울타리가 된 대한민국은 근세사의 기적이다. 제국주의의 야만적 권력의 먹이가 되어 나라를 뺏기고 희망을 잃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종교개혁 정신으로 무장한 퓨리탄들이 전한 복음은 삶의 등불이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불어일으켰다. 선교사들이 기도하였고, 조선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간구하고 회개하자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1907년 평양사회가 변했으며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교육, 여성지위향상, 공창제폐지, 여성지위향상, 우상숭배철폐 등의 사회변혁운동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인간을 억압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3·1운동이 일어나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폭로하였으며, 임시정부의 국가정체에 영향을 주었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선서문에는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이다. 우리의 인도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고, 우리의 정의로 일본의 폭력을 이기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국민이 받들어 평화적 독립을 선포하며(전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헌법)의 원문

휘하고 평화에 공헌한다(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 건국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라는 국가정체를 정한 놀라운 건국정신을 천명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1919년 8월 최초의 외교문서로서 대한민국정부 설립에 대하여 통지하면서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세계적 보급이다.”라고 하여 국가의 비전을 밝혔다. 100년전 꿈과 같은 비전이 현실이 되어 비폭력 저항은 암흑과 같은 시대를 물리치고 독립과 자유를 가져왔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자유와 평화, 인도를 전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때는 비록 소수였지만 망한 나라에서 기독교가 빛이다라는 민중의 지지를 받아 교회는 국가를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에 탐닉하며 자신을 세속에서 지켜 정결하게 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탐욕과 타락의 정신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자 등불은 꺼지고 암흑이 지배하게 되었다. 교회가 빛을 잃자 국가도 길을

잃었다. 우상이 만연하던 문화와 정신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교회 순결함도 위협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두었듯이 하나님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 (신12:4, 31)가 되었다. 나의 행복을 이루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시작은 나 자신부터 해야 한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가능하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내 뜻과 의사를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삶이다. 오늘 현재 그런 삶을 살 때만이 500년의 종교개혁의 전통이 현대에 실현되는 것이 될 것이다.



글 | 박은영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NYU School of Law 국제법 박사 (J.S.D.) 를 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으로 있다.

대한민국 문명사와 개신교의 소명

김광동 박사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I. 프로테스탄트 500년과 문명 변화

프로테스탄트는 1517년 유럽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종식시키는 빛을 밝히며 근대(近代)를 열었고, 이후 지난 500년간 문명변화를 주도해온 삶의 태도와 인식론적 기반을 형성시켜왔다. 실제 세계가 모델로 삼는 국가들은 대부분은 프로테스탄트적 기반위에 있다. 인구 1천 만명 이상 국가 중 국민소득 상위 35개국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스페인 등 총 11개국인데, 그 중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기독교 기반 국가이다. 기독교에서도 카톨릭 기반이 강한 나라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뿐이고, 나머지 모두 프로테스탄트적 기반이 강하다. 만약 소규모 국가이지만 고소득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까지 포함한다면 프로테스탄트적 기반이 강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 근현대 문명을 열어온 대표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근대문명사와 종교와의 관계를 볼 때, 프로테스

탄트 5백년 역사는 근대 문명발전과 깊은 상호관계를 갖거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문명사와 개신교적 친화성과 관련하여 기독교인구가 2% 남짓한 일본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예외로 보기 어렵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명확하게 개신교의 확산과 한반도의 문명변화는 함께 했다는 것은 지난 1백여년간 프로테스탄트적 확산이 가장 강하고 빨랐던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27.6%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인구만으로도 19.7%를 차지하여 불교 15.5%를 넘는다. 아시아 44개 국가 중 오직 한국만이 개신교국가로 분류된다. 개신교 비율이 10%를 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한국은 개신교만으로도 19.7%로 서유럽 국가의 기독교 비율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명확히 프로테스탄트적 기반에 서있는 나라이며, 개신교문명과 유럽문명을 분리할 수 없듯 대한민국의 성공과 개신교 확산 및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내면화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에서 근대문명 체계가 만들어지는 계기는